



# energy snapshot

Analyst. 손 지 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## 사우디 曰, “하반기에 아람코IPO 한다고!”

- ▶ 아람코 CEO 아민 알 나세르, “아람코 IPO 18년 하반기 그대로” 공식언급. 영국관리 소스라는 FT의 보도는 또 다시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. IPO가 근접한 시점인 만큼 유가와 주식시장의 파생효과에 대한 고찰 필요

### 영국관리 소스라며 아람코 IPO 연기를 또 보도한 해외언론

#### FT “사우디 아람코 IPO 2019년으로 미뤄질수 있어”

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상장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. (중략)  
[파이낸셜타임스 등은 11일\(현지시간\) 영국 관리를 이용해 아람코 IPO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.](#) 아람코는 당초 IPO를 통해 올해 말 사우디 타다을 증시와 뉴욕 또는 런던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. (중략)  
 그러나 목표액 2조달러의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우디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풀어내지 못해 IPO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(중략)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관 투자자나 국부펀드 등 사적 투자자들에게만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이라거나, IPO가 202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온다.

자료 : 이데일리(2018년 3월 12일), SK증권

### 또 한 번 추측들을 일축, 아람코 CEO “상장 그대로 진행”

#### 아람코 CEO "올해 하반기 IPO"...상장 연기설 부인

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올 하반기에 기업공개를 할 것이라고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(CEO)인 아민 나세르 사우디 왕자가 26일 밝혔다.  
[나세르 CEO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“우리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”면서 “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에 언제 상장할지는 \(사우디\) 정부에 달려있다”고 말했다](#)

그는 이어 “이 작업은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잊지 마라. 아람코의 크기와 복잡성으로 인해 시간이 요구된다”고도 했다.  
 나세르는 아람코를 어느 시장에 상장할지 밝히지 않았지만, 사우디 국내의 타다을 증시와 뉴욕·런던·홍콩 등 해외증시 한 곳에서 동시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.

자료 : 연합뉴스(2018년 3월 27일), SK증권

- 올 해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갈 수록 점점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 있죠. 바로 사우디 아람코의 IPO입니다

- 특히 “Mr. Everything” Mohammed Bin Salman(이하 MBS 통칭)이 지난 연말 “18년 하반기 IPO 확정”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해외언론들은 왜 그런지 지속적으로 연기 가능성은 제기하고 있습니다

- 급기야 올 3월에는 “영국관리”소스라며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한번의 IPO 연기 가능성을 보도했죠

- 그런데 이거 어찌죠. 이번에도 해외 유력언론들이 물을 먹었네요. 아람코의 CEO 아민 알 나세르(Amin Al Nasser)는 어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18년 하반기 상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

- 늘 같은 패턴입니다. 언론의 “카더라” 이후, 사우디의 공식 부인. 이번에도 다르지 않네요. 그려는 와중에 2018년 연말도 거의 다가왔으니. 이제는 언론보다는 사우디의 직접발표에 더 주목할 때인 듯 싶습니다

- 특히 알 나세르는 사우디 외 해외증시 어디에 상장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, 영국의 메이 총리는 공개 구애를 한 상황인데, IPO 규모가 규모인 만큼(2,000조원 예상) 사우디로서는 ‘갑질’을 할 수 있는 큰 카드를 펼 셈입니다

- 아람코의 IPO는 하반기 유가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절대변수입니다. MBS도 “NEOM”으로 대변되는 사우디의 경제/정치 변화를 위해서 IPO 성공이 필수적이구요.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언론의 “카더라”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, IPO의 이유와 이후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

- 자세한 내용은 아람코의 IPO를 심층적으로 다룬 1/29 SK증권 리서치센터의 보고서 “The Big One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 •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